

# ★ 드림레터 11월

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소식지

## 29 호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 깨기



### 직업에 대한 편견과 오해

#### ‘남자 일’이란 건 편견일 뿐

자동차 정비사인 김○○ 씨는 자격증을 딴 뒤 여자 정비사를 구하는 곳이 없어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찾다 못해 카센터에서 회계 일을 하는 부서에 지원했는데, 우연히 ○○ 씨가 정비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정비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해주어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 씨는 정비 일을 하면서 여태까지 “여자는 이런 일을 해야해, 남자는 이런 일을 해야해”와 같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편견이 깨졌다고 합니다.

남자, 여자를 떠나서 사람은 누구든 약점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자신의 성별이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내가 선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일뿐, 결국 모든 길은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이지요. **우리 사회가 구분하고 있는 남성의 일, 여성의 일은 사실상 신체나 능력의 차이 라기보다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일 뿐입니다.**

(출처 : 미디어 일다, 2017.07., 남자직업 여자직업 고정관념을 깨라)

#### 사회적 편견과 장벽을 넘은 사람들

온갖 사회적 편견과 장벽에도 불구하고 과학사에 이름을 남긴 많은 여성 선구자들이 있습니다. 진리탐구에 대한 열정으로 때로는 상상을 뛰어넘는 고난을 겪으며 그들은 매 순간 자신들 앞을 가로막는 편견과 차별에 맞섰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정신력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이 미 해군 최초의 여성 제독 그레이스 호퍼입니다. 그녀는 세계 최초로 컴퓨터 컴파일러 언어와 프로그래밍 언어 코볼(COBOL)을 개발했으며, 미 해군 역사상 미사일 장착 구축함에 이름이 붙여진 최초의 여성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녀를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애칭으로 부르는 것은 그녀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이라 볼 수 있죠. 그레이스 호퍼는 가장 위험한 말이 “우리는 지금까지 늘 이렇게 해왔어”라고 했습니다. **직업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은 익숙한 것에 사로잡혀 있는 전형적인 생각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자신이 먼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열린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처 : 황진명, 김유향(2017), 「과학의 일곱 기둥」)

### 진로교육 TIP 일과 직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

다음 글을 읽고 일과 직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글의 주인공인 드림이가 만난 직업 중 어느 직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각 직업인들의 성별이 무엇이었을까요? 자녀와 함께 먼저 직업인들의 성별에 대해 상상해보고, 일과 직업에 대해 어떠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야기해보세요.

○○ 초등학교 5학년, 드림이의 하루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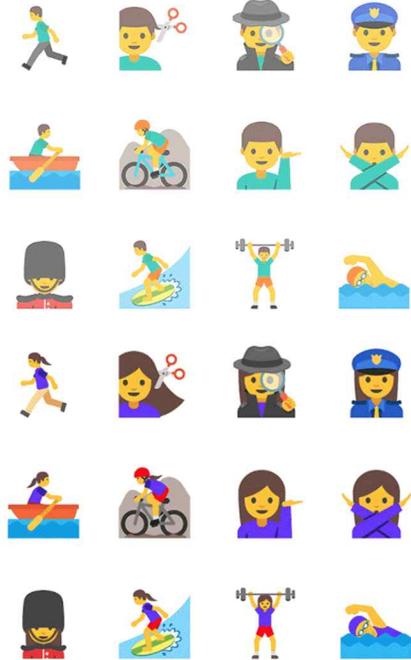
드림이는 새벽에 **배달원**님이 문 앞까지 배송해주신 야채와 과일 주스를 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경비원**님께 인사를 드린 후, **스쿨버스 기사**님의 버스를 탔어요. 오늘 학교 가는 길에는 멋지게 수신호로 차량을 통제하는 **경찰관**님과 도로 가로수를 정비하는 **조경사**님들을 보았습니다. 학교에서는 **담임 선생님**과 **교과 선생님** 수업에 재밌게 듣고, **영양 선생님**과 **조리사**님이 만들어주신 급식도 맛있게 먹었어요. 학교를 마치고선 체육관에 가서 **태권도 사범**님의 지도를 받아 새로운 품새 연습을 하고요, 엄마를 만나서 이비인후과에 갔어요. 병원에서 **의사**선생님께 치료를 받고 **간호사** 선생님과 다음 진료 약속을 잡았습니다. 문구점에 들러서 내일 준비물을 샀는데 **문구점 사장**님이 단골손님이 왔다며 100원을 깎아주셔서 기분이 날아갈 것처럼 좋았어요. 집에 와서 저녁을 먹은 후 자유 시간엔 유튜브로 좋아하는 **크리에이터**님의 게임 방송을 보고, 방송에서 알려준 **웹툰 작가**님의 만화를 보았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SNS로 좋아하는 **소방관**님의 글을 읽다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출처 : 스쿨잼 블로그, 2017.09.13., 나도 모르게 직업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다니!)

## 이모티콘, 직업 평등을 호출하다

구글은 2016년 5월 이모지 컨소시엄에서 여성형이 추가된 13개의 이모티콘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공식 블로그를 통해, 13개의 이모티콘 중 11개가 국제 표준으로 등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을 나타내는 이모티콘은 남성이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경찰관, 탐정, 안전요원 등 직업 대부분을 나타내는 이모티콘이 남성형으로만 존재해왔죠. 반면 여성형 이모티콘은 미용사, 공주, 신부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모티콘 용례에는 우리의 실제 언어생활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 경찰, 의사 등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는 암묵적으로 남성을 가리키곤 했기 때문입니다. 여교수, 여경, 여의사 등 여성 직업인을 가리킬 때는 접두사 '여-'가 붙습니다. 반대로 헤어디자이너와 간호사 등은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져 남성 종사자를 배제하곤 했습니다. 구글은 치우쳐진 성별 직업관을 변화시키고, 여성 커리어의 다양성을 보여주면서, 여자 아이들에게 자신의 성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 그리고 4가지 피부색으로 다양화된 11가지 직업군 이모티콘을 선보였습니다. 더불어 이미 사용되고 있던 이모티콘 중 33개를 남성과 여성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출처 : 블로터, 2016.07.15, 여성 농부는 왜 안 돼?)



(이미지 출처 : <http://kr.piliapp.com/emoji/google>)

### 함께 해보세요 직업에 관한 생각 나누기

직업에 대한 생각을 기록한 카드를 보고 나와 같은 생각과 다른 생각으로 나누어 보세요.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해서는 나의 의견을 쓰고 서로의 생각에 대해 자녀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높은 타워 크레인에서 아파트 짓는 일은 힘들어서 남자가 하는 일이야.”

“나는 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니까 과학만 열심히 공부하고 다른 과목은 대충해야지”

“나는 여자들도 항공기 조종사나 항해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니까 매일 컴퓨터 게임만 열심히 해서 프로그래머가 될 거야.”

“부모님은 교사가 되라고 하지만 난 세계를 여행하는 여행 작가가 될 거야.”

“나는 지금 공부를 못하니까 대학도 못가고 그러면 취직도 못할 것 같아.”

(출처 :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SCEP), 창의적 진로개발)

### WEEKLY NEWS



누구나 평생 고민하는 자신의 진로, 정확하게 알고 준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자녀 진학정보, 진로고민 상담, 직업정보 등을 제공하는 학부모 진로교육 팟캐스트, **매주 화·목요일** 팟캐스트(iOS)&팟빵(Android)에서 만나보세요!

**학부모를 위한 진로레시피 최신편 들어보기** ▶



#### <특특! 꿈TALK!>

진로 고민, 사연을 보내주세요~

꿈을 찾아 달려가는 학생, 아이의 미래를 위해 도움을 주고 싶은 학부모, 학생들을 더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은 선생님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하단의 메일로 고민을 보내주시면 선정된 사연과 그에 대한 전문가답변을 드림레터 또는 진로레시피에서 소개합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 <jinrohlp@naver.com>**